

## Part 2. 덴마크 교환학생 준비하기 : 숙소 + 짐싸기

### 지난 포스팅

덴마크 교환학생을 준비하는 학생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자 시작했다. Part 1 에서는 비자 발급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적어놓았다. 온라인 지원을 통해 발급받는 ST1부터 덴마크에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할 CPR, Pink Card 까지. 이번 포스팅은 생활 적응에 초점을 두며 덴마크에 도착하기 전 준비하면 좋을 숙소와 짐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 출국 전, 준비하면 좋을 것들 중 2순위, 숙소

#### 2. 숙소 : 난이도 ★★☆☆ 중요도 ★★★★★ 비용 \$\$\$\$

코펜하겐은 인구수 대비 주택 수가 현저히 낮은 도시 중 하나이다. 따라서 월세가 천정부지로 오를 뿐만 아니라 구할 수 있을지의 유무도 불분명하다. 아울러 현지 학생들은 기숙사에 들어가는게 하늘에서 별따기라고 한다. 참고 : <http://nakeddenmark.com/archives/10291>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숙사로 꼽힌 Tietgenkollegiet. 출처 : Jann Kuusisaari

그래도 우리는 파견학교와 DIS(북유럽 교환학생 제단) 등에서 교환학생에게 별도로 제공하는 기숙사가 있어 정규 학생들보다 수월하겠지만 마냥 손을 놓고 있다간 다른 학생들이 선점할 수 있으니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기숙사 이외에도 다양한 옵션들이 있으니 본인에게 맞는 숙소를 찾도록 하자.

## 덴마크 대학교의 기숙사는 어떨까?

학생이 머무는 자리인 만큼 생활하면서 꼭 필요한 책상, 가구와 시설들이 갖춰져있다. 6개월, 12개월 단위로 계약 가능하고 가격도 3000 ~ 5000 dkk/month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에 속한다. 체크인과 체크아웃, 시설정비 등이 체계적이고 이웃들이 모두 학생이기 때문에 문화 생활 또한 활성화 되어있을 가능성이 있다. (모든 기숙사가 그렇진 않다)

코펜하겐 내 기숙사만 해도 수십개가 있다. 파견학교에서 직접 마련한 기숙사인 경우보다 사설 기업이 지은 학사에 파견학교가 중계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각 기숙사마다 시설과 분위기가 가지각색이며 본인의 파견학교의 학생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교 학생들과 함께 생활한다.



내가 제안받은 기숙사인 월세 3000 dkk의 DIK Albertslund이다. 학교와의 거리가 너무 멀었다. 출처 : Flickr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페이스북을 통해 이벤트를 자주 열어 다른 외국인들과 친해지기 쉬운 기숙사가 있는 반면에 서로 조용하게 지내지만 거리가 가깝고 세탁기 등의 편의시설이 잘 되어있어 매우 편하게 살 수 있는 기숙사도 있었다. 가능하면 입주 전에 기숙사에 대한 정보수집을 진행하자.

## 기숙사가 되지 않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 숙소를 구할 때 고려할 3박자이다. 비용, 크기, 파견학교와의 접근성.

1) 비용 : 지역, 가구의 유무, 건물 상태, 건축 연도에 따라 최소 3000 DKK/month에서 최대 7000 DKK/month까지 천차만별이다. 웬만하면 **5000 DKK/month = 월 90 만원**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자.

2) 크기 : 최소 3평에서 최대 7평까지 본 적은 있지만 개인적으로 5평(16 m<sup>2</sup>)이 적절하다고 본다. 기숙사의 경우에는 주방이 달려있는 옵션도 있지만 보통은 오피스텔처럼 혼자 쓰는 것이 아닌, 화장실과 부엌을 공유하는 매물이 제일 많기 때문이다.

3) 접근성 : 통학 시간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지므로 파견학교와의 접근성은 매우 중요하다. 덴마크도 출,퇴근 시간에는 교통이 막힌다. 자전거를 타고 다닐 생각이라면 **5 km 이내**가 적절하고 가능하면 대중교통, 마트와의 접근성도 한 번쯤은 고려해보자.

▶ 숙소를 구할 때 참고하면 좋을 사이트 5군데는 다음과 같다.

- 1) 페이스북 : 덴마크 워킹홀리데이, Copenhagen Accommodation 그룹 등에 올라오는 매물을 보며 이해도를 높이고 본인의 수용한계를 확립하자. 대신 사기도 많고 무례할 수 있으니 거래는 절대 금물.
- 2) 기숙사 : 파견학교나 DIS에서 제공하는 기숙사가 어찌면 가장 합리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합격 확률도 상당히 높다. 외국인 학생들간의 교류도 활발하다. 하지만 결코 무작정 좋은 것만은 아니다. 조건이 좋지 않으면 대안을 모색하는 것도 방법이다.
- 3) AirBnB : 여행용 숙소 공유 플랫폼이 아니라 1달 이상의 장기렌트도 가능하다. 장기간일수록 AirBnB에 내는 수수료 비율이 줄어들지만 장기간일수록 매물도 현저히 떨어진다. 문제가 발생할 시 전적으로 AirBnB가 책임지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다.
- 4) 사설 사이트 : Findroommate, Nestpick 등 월 정액제를 내고 숙소를 알아볼 수 있는 플랫폼이다. 많은 매물들이 올라오고 조건에 맞는 숙소를 찾기는 쉬우나 에어비엔비처럼 문제가 발생해도 책임을 지지 않으니 정 찾지 못하겠을 때 사용을 권장한다.

※참고 : AAU대학 코펜하겐 캠퍼스에서 제공하는 기숙사는 비록 저렴하지만 방의 크기가 3평으로 작고 파견학교에서 14km나 떨어져있었다. 접근성과 크기가 불만족스러워 신청만 해놓고 이용하진 않았다. 이곳을 참고.

※TIP : 에어비엔비가 가져가는 10%의 수수료마저 아끼는 것이 좋으니 주인과 충분히 상의하여 플랫폼을 통해 거래하지 않고 따로 현금으로 거래하도록 하자.

## 한국이랑 너무 멀어! 짐 챙기는 방법

### 3. 여행 짐 : 난이도 ★★ 중요도 ★★★★★ 비용 \$\$

덴마크는 한국과 시차가 8시간 차이나는 아주 멀리 떨어진 나라이다. 하지만 위탁수하물의 무게제한은 20kg ~ 25kg로 꽤나 제한적이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생활양식을 나름 유지하기 위해서는 캐리어에 어떤 짐을 넣느냐에 따라 크게 좌우한다. 이 포스팅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맞춤형으로 적을 순 없지만 최선을 다해 덴마크에서 구하기 쉬운 것 vs 어려운 것을 품목 별로 정리해보았다.



짐을 챙길 때 알아두면 좋을 27가지 꿀팁들을 모아둔 영상이다.(사진 클릭) 출처 : Youtube - Kristen & Siya

1) 옷가지 : 부피와 무게 면에서 압도적이다. 특히 연중 쌀쌀한 날씨 때문에 가을 겨울옷의 비율을 높게 잡아야 하고 옷 뿐만 아니라 신발, 수건, 악세서리 등까지 하면 겹잡을 수 없다. 덴마크의 물가는 비싸고 쇼핑할만한 곳이 H&M 뿐이기에 옷은 잘 챙겨가도록 하자. **일주일에 한 번 빨래할 만큼과 정장처럼 단정한 옷 2벌** 정도만 챙겨가면 적당하다. 퍼서 넣지말고 돌돌 말아서 넣자.

2) 전자제품 : 충전기를 포함한 휴대폰, 노트북은 당연히 여행에 빛내줄 보조배터리, 헤어드라이기, 고데기, 카메라 등도 생각해줄길 바란다. 220V이지만 다른 나라를 다니며 다른 모양의 돼지코를 볼 수 있으니 종합 변환기 하나쯤은 챙겨가자.

※TIP : 콘센트 갯수가 부족할 수 있다. 멀티탭보다 부피와 무게면에서 우월한 **삼발이**(내가 지은 별명)가 경험상 매우 우월했다. 옥션 말고도 다른곳에서 팔거다.

3) 상비약 : 덴마크 의료서비스가 잘 되어있다? 방심하면 금물. 덴마크에서 한국만큼의 서비스를 기대하긴 분명 어려울 것이다. <Apoteket> 라는 현지 약국이 존재하지만 일찍 문을 닫으며 설명서가 영어로 적혀있으며 아시다시피 영문 의약품어는 어렵다. **타이레놀, 진통제, 해열제, 항생제, 소염제** 등 기초상비약과 **붕대+의료용 테이프**도 꼭 챙기자.

4) 한식 재료 : 고려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덴마크의 물가는 비싸다. 외식 한 끼에 4만원 가까이 나가며 일반 한식은 입맛에 맞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아시안마트가 있으나 한국식 재료보다 중국식 재료들이 많고 가격도 만만치 않다. 나는 김, 통조림 김치와 깻잎, 참기름, 고춧가루(한인마트서도 팔지 않음)등을 챙겼다. 라면, 고추장, 간장 등은 Netto에서도 다 판다.

※TIP : 밥을 정말 많이 먹게 될 것이다. 밥통 꼭 챙기자. 무거우니 가서 중고로라도 사자.

※TIP : 인천공항 면세점에서도 라면박스(20개입)를 구입할 수 있다. 무게제한에 포함이 되지 않으니 라면은 나중에.

5) 학용품 및 책 : 대한민국의 문구점만큼 종류도 다양하고 저렴한 나라가 없다. 똑같은 필기도구인데 4배 더 비싼것도 보았다. 여러번 읽어도 재미있는 **책 5권** 정도와 **일기장, 공책 1권** 정도는 챙겨주고 **스테이플러와 포스트잇**을 위한 자리도 비워놓자.

## 앗! 자전거도 미리미리 챙겨줘요~



덴마크의 Rush Hour. 자전거 이용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다. 출처 : Visit Copenhagen

+ 자전거 : 자전거 강대국인만큼 자전거를 구해야 생활이 훨씬 편리해지고 경제적 여유가 생긴다. 중고 가격은 **700~900 dkk**가 적당하며 안장 높이, 녹슨 상태, 부품 작동 여부 등을 잘 체크한 후 현장에서 만나 구매를 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자. 페이스북에 매물이 많이 올라오니 자주 들어가 확인하자. 되팔 때에도 특별한 결함이 없는 한 구매했던 가격에 똑같이 되팔면 된다.

## 이제 진짜 끝.

이제 한국에서 준비해야 할 것들은 다 정리된 듯 싶다. 여러분들이 약 한 달의 시간동안 준비한 비자와 캐리어를 양손에 챙기고 숙소를 향해 떠나는 일만 남았다. 여권 꼭 챙기시고 국제선인만큼 이륙 3시간 전 공항 도착은 필수. 1학기 혹은 1년간 건강 조심하시고 많은 경험, 많은 추억 남기시길 바라겠습니다.

※ 마지막 TIP : 코펜하겐 공항은 지하철과 기차 모두를 이용해 City Center까지 15분이면 간다. Zone을 3개를 통과하기 때문에 38 dkk (6000원)이며, 꼭 꼭 꼭 City Center에 도착하자마자 파란색 교통카드인 <Rejsekort>를 만들자. 저렴하진 않아 지인이 물려주면 좋겠지만 City Center 안의 7 eleven과 무인발급기에서 Anonymous를 80 dkk (12000 원)에 구매할 수 있다.

URL 링크 : <https://blog.naver.com/lawliet0823/221335652167>